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83/1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08학년도 6월 13~18 풀이시간 :
풀이 전 이해도 :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앓은 메기습의
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,
 ㉠ 나는 지으리, 나의 집을,
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.
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
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.
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.
 나는 문(門)간에 서서 기다리리
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[A]
 세상은 회개, 또는 고요하게,
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,
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,
 그대인가고, 그대인가고.

- 김소월, 「나의 집」 -

(나) 잃어 버렸습니다.
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
 ㉡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
 길에 나아갑니다.
 ㉢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
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.
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[B]
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
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
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.

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
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.

㉣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
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,

내가 사는 것은, 다만,
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.

- 윤동주, 「길」 -

(다) ㉤ 생사(生死) 길은
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,
 나는 간다는 말도
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.
 어느 가을 이른 ㉥ 바람에
 이에 저에 떨어질 ㉦ 일처럼
 한 가지에 나고

가는 곳 모르온저.

아아, 미타찰(彌陀刹)에서 만날 나
 도(道) 닦아 기다리겠노라.

- 월명사, 「제망매가(祭亡妹歌)」 -

13. (가)~(다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.
-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.
-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.
-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.
-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.

14. [A]와 [B]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[A]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.
- ② [B]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- ③ [B]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.
- ④ [A]에서는 [B]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⑤ [A]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, [B]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.

15. (나)의 ‘하늘’과 (다)의 ‘미타찰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‘하늘’과 ‘미타찰’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.
- ② ‘하늘’은 숭고함을, ‘미타찰’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.
- ③ ‘하늘’과 ‘미타찰’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.
- ④ ‘하늘’은 화자의 반성을, ‘미타찰’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.
- ⑤ ‘하늘’은 자연의 영원성을, ‘미타찰’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.

16.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의 ‘집’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.
- ② ㉡의 ‘더듬어’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.
- ③ ㉢에서는 ‘돌’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.
- ④ ㉣의 ‘풀 한 포기 없는’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.
- ⑤ ㉤의 ‘머뭇거리고’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.

17. (가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
-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.
-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.
-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.

18. (다)의 ㉠, ㉡와 <보기>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<p>A. 간밤에 부던 <u>바람</u> 만정 <u>도화(桃花)</u>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</p> <p>B. <u>바람</u> 불어 쓰러진 <u>나무</u>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냐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</p>

- ① ㉠와는 달리 A의 ‘바람’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.
- ② ㉠와 B의 ‘바람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- ③ ㉡와는 달리 A의 ‘도화’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.
- ④ ㉡와는 달리 B의 ‘나무’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.
- ⑤ ㉠, A의 ‘도화’, B의 ‘나무’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.